

COVID-19 팬데믹이 유학생의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숙* · 김정숙** · 이용승***

요약 이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의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재난 언어차별주의와 언어이데올로기의 이론적 개념에 근거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어소수자인 유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유학생들은 재난 정보에 어떻게 접근하고, 팬데믹에 수반되는 도전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탐구하였다. 언어·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학생과 졸업생 10명을 대상으로 면담 자료를 수집하여, 주제 분석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재난 커뮤니케이션이 한국어로만 이루어져, 유학생들의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구조적으로 제도화된 불평등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차별주의 때문이다. 유학생들의 취약성은 일상적 차별과 고정관념을 통해 내재화된 억압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다. 한편, 유학생들은 재난 언어차별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트랜스랭귀징 형태의 언어브로커링 전략을 채택하였다.

주요어 재난 언어차별주의, 언어이데올로기, 트랜스랭귀징, 코로나-19, 유학생

1. 서론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처음 발병이 확인된 이후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지구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하였다. 이에 대응해 국경 이동 제한, 봉쇄령,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긴급 행정 명령과 방역 조치 등이 연이어 취해진 결과 내국인은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8070 580).

* 제1저자, 한국학 중앙연구원, 국어학, 전임연구원, kkokkomai@daum.net

** 교신저자, 대구대, 사회언어학/응용언어학, 조교수, jungskkim@daegu.ac.kr

*** 공동저자, 대구대, 정치학, 부교수, leeyongseung@daegu.ac.kr

물론 초국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전 세계 대학이 폐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개학을 준비하며 출국 혹은 입국을 앞두고 있던 수많은 유학생의 발이 묶이고, 대학 당국도 큰 혼란에 빠졌다.

코로나-19는 동시대가 겪은 전례 없는 세계적 보건 시스템의 위기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노약자나 저소득 가정과 같이 전통적인 사회 취약 계층이 훨씬 더 위기에 약하다는 사실이 그동안 이루어진 재난연구에서 실증된 바 있다(WHO 2020). 코로나-19의 긴급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과 구호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과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는 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유학생을 비롯하여 난민 등 외국인 대부분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었다.¹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정보와 긴급 행정 명령, 대학 폐쇄 등과 관련한 정보 대부분이 한국어로 전달되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심각한 불안 상태에 빠지거나,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재난은 그간 타자에 대한 포용 가치를 지향하는 발전적 정책 기조와 대중 의식을 양극화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를 비롯해 세계의 많은 지역은 상당한 수준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 전쟁, 테러 등의 위기와 긴급사태 발생 시, 국가의 정책과 대응은 자국민 보호와 ‘국민’ 안전 위주의 배타적인 형태로 돌아서기 마련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각 국가와 정부가 취한 이민정책과 출입국 조치들은 자국 경계를 더욱 엄격하게 조여 자민족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국경을 봉쇄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기도 했다(권채리 2020; 이재유 2020).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제한적 반응들은 문화언어 소수집단과 개인을 더욱

1 이주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국적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이주민에게 긴급생활비 지원(서울시), 결혼이주민, 영주권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안산시)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Jang and Choi 2020; Piller et al. 2020).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타적으로 되고,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직면한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종, 계층, 종교 및 언어 등의 전통적인 사회적 경계를 넘어 연대하고 결집한다(Casagrande et al. 2015). 이런 이타심과 경계를 뛰어넘는 결집과 연대는 코로나-19 발병 초기 쏟아진 각계각층의 사회적 지원과 연대 등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문화언어적 ‘타자’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은 거시적인 수준보다는 미시적인 일상 속에서 미묘한 양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² 따라서, 언어소수자로서 겪는 미세한 차별(micro-aggression)은 가시화되거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지만, 이를 겪는 당사자들은 정체성 혼란과 자존감 저하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직면하게 된다.

이 연구의 대상인 유학생은 사회문화 언어적 ‘타자’로서 사회구조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소수화되고, 주변화되어 특정한 고정관념과 인종차별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Kim 2020; Lee 2020). 유학생의 차별과 인종차별주의 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유학생들이 거주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타자화’된다는 점과 지역 커뮤니티의 미온적 수용에 대한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Heliot et al. 2019; Ladegaard 2017; Yao 2018). 유학생에 대한 문화언어적 ‘타자화’에 관한 연구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이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대립적 양가성을 보인다는 것이다(Kim 2020; Mittelmeier et al. 2020).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대중들은 이들에 대해 양극화된 감정과 인식을 보인다. 대학 내의 다양성 증가와 대학재정 및 경제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있는가 하면 반면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대학 수학능력 결핍에 대한 고정관념, 내국인 학생과의 제한적 사회관계 등의 불편한 문제와 긴장이 혼재되어 나타난다(Kim 2020). 이런 일상 차별로 인해 이들 집단은 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특유의 재난 취약성에 직면하게 된다(Uekusa 2019; WHO

2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 피로감이 커지면서 신천지, 이태원발 집단 감염과 연관된 성소수자 등 내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분열도 있었으나, 이는 문화언어 소수자가 겪는 구조적이고 미시적 차별과는 결이 다르다.

2020).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 내 문화언어적 ‘타자’로서 유학생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동안 겪은 경험과 일반 사회적 행위 양상을 재난 언어차별주의와 언어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표면적 경험의 양상은 달라도, 그 근저의 동기는 ‘차이’와 ‘다름’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차별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경험을 광범하게 비교하거나 대조하기보다, 이 연구의 이론적 틀과 개념인 재난 언어차별주의, 언어이데올로기와 상징적 폭력을 둘러싼 근저 쟁점을 다루는 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다름’으로 인한 차별과 힘의 작용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1: COVID-19 재난 특수 상황이 문화언어적 소외 집단으로 분류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약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2: 외국인 유학생들은 COVID-19 재난 정보에 어떻게 접근하며 대응하고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1) 언어차별주의와 언어이데올로기

언어차별주의(linguicism)는 언어 차이를 기반으로 언어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이다. Phillipson(1992: 47)은 언어차별주의를 “언어(모어)를 기반으로 정의된 집단 간의 권력과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할을 합법화하고, 실천하여 그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이데올로기, 구조 및 일상적 관행”으로 정의한다. 한 사회에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같이 있을 때, 어떤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회 내 집단을 구분 짓고, 그 차이를 기반으로 각 언어 간의 가치와 위계가 설정된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언어는 공식어

나 표준어로 그 사회에서 특권화된 지배 언어가 된다. 사회적으로 공인된 가치가 부여되어 문화자본화된(Bourdieu 1991) 언어는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구성물로서 단순한 의사소통 이상의 기능을 한다. 그렇게 차별화된 집단 간의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관계는 제도적으로 합법화되고,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실체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불평등한 관계를 (재)생산한다. 따라서, 개인의 언어가 그 사회에서 특권화된 언어인지 아닌지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 및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Bourdieu 1991; Van Dijk 1993).

언어차별주의는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언어 이데올로기 형태로 작동한다(Phillipson 1992; Uekusa 2019). 일반적으로 한 사회 혹은 집단이 언어, 언어사용 및 화자에 대해 갖는 특정한 신념, 가치, 태도로서(Irvine and Gal 1999) 언어이데올로기는 각종 사회적 장(field)에서 사회권력 재생산에 기여하며, 그런 이데올로기 과정을 통해 정당화된 권력은 지배 언어 사용자 집단과 그들의 지배 문화에 집중된다(Fairclough 2001; May 2005). 예컨대, 교육, 상업, 경제 등 주요 사회영역에는 그 사회가 승인한 특권화된 표준형의 공식 언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된다. 취업과 경제 활동에서 상업화된 표준 언어 능력이 요구되고(Heller 2010), 정부와 공공기관의 서비스는 주로 지배언어로만 사용가능하다(Tierney 2006). 정치적 참여 또한 언어소수자들에게는 제한되며(Schmidt 2002), 억양(accent)에 근거한 차별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권력관계를 지지하고 영속화시킨다(Lippi-Green 1997). 요컨대, 한 개인의 교육적, 정치 및 경제적 성공은 사회적으로 적법화되고 가치화된 자원, 기회 및 담론 접근성의 문제로 귀결된다(Van Dijk 1993).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같이, 언어차별주의는 흔히 제도화되며(Skutnabb-Kangas and Phillipson 1995) 다른 차별 형태와 상호 교차하여 억압 체계를 더 복잡하게 악화시킨다(Crenshaw 1991). 언어차별주의는 특히 인종차별주의와 섞여 복잡다단한 차별 양상을 나타낸다(Kroskrity 2015; Phillipson 1992). 근래 들어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성 담론이 포용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는 점차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인종차별주의가 근절된 것이 아니다. ‘인종’이라는 용어는 ‘문화’ 혹은 ‘언

어'로 대체되는 신인종차별주의(New racism)로 미묘하게 위장되어 지속되며 (Schmidt 2002), 인종(race)이 '문화인종성'(ethnicity)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인종'과 '인종차별주의'를 은폐하게 된다(Urciuoli 2020). 인종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을 꺼리고 회피한 결과, 일상에서 은근한 형태로 지속되는 인종차별주의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론적 개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된다(Alim et al, 2020). 그런 회피가 오히려 인종차별주의를 은폐하고 비가시화함으로써 불평등한 상황을 유지, 존속하는 데 공모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Kroskrity(2015; 2020)는 차별과 종속의 수단으로서 언어 자원을 사용하는 인종차별주의, 각종 인종주의화(racialization) 행위를 언어인종차별주의(linguistic racism)로 본다. 이런 언어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는, 명시적인 형태의 차별뿐 아니라 일상화되고 상식화되어 사람들의 인식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적 속성에 주목한다. 즉, 다수의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복합적으로 모인 언어이데올로기 집합(language ideology assemblage) 내에서, 어떻게 이데올로기들이 상호작용하여 일부 언어사용자들로 하여금 암묵적인 차별 대상의 존재조차 깨닫지 못하게 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언어차별주의의 이런 이데올로기적 작용은 흔히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 형태로 나타난다. 상징적 폭력은 상이한 계층 집단 간에 무의식적인 합의에 의해, 더 큰 권력을 가진 지배집단의 규범(norm)을 종속 집단의 규범으로 강요하는 연성 권력(soft power) 형식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헤게모니적 권력에 의한 의도된 행위라기보다는, 그 사회계층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규범과 기준으로 당연시하는 현 상황의 무의식적 강화이다(Bourdieu 1991). 상징적 폭력의 특징은 가해자가 꼭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가 그런 이데올로기에 합의하고 이를 내재화하여 이데올로기 재생산과 불평등 관계 영속화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다(Bourdieu and Wacquant 1992; Eagleton 1991; Gramsci 1971). 부드럽고 은근한 지배 형태는 폭력으로 인지되지 않기에 이에 대한 저항을 생각할 수 없으며(Foucault 1980; Scott 1990), 오히려 피지배자가 지배에 공모하고 동조하는 형태로 작동된다. 따라서 상징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의한 가시적 지배보다 훨씬 강력한 지배 효과를 달성한다(Bourdieu 1991).

2) 재난 언어차별주의와 문화언어소수자

Uekusa(2019)는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나 질병 재난 상황에서 언어소수자들이 겪는 차별 경험과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차별주의, 언어이데올로기와 상징적 폭력 개념을 적용하고, 이를 ‘재난 언어차별주의’(disaster linguicism)으로 재개념화 한다. 재난 언어차별주의는 평소 전통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이자 차별의 대상인 언어소수자들이 재난 혹은 사회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안전을 포함한 생활 전반에서 더욱 노골화된 차별과 취약성을 겪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존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이들은 주류 집단들보다 재난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e.g., Crowley 2021; Klinenberg 2002; Donner and Rodriguez 2008). 가령, 재난과 비상사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재난 정보는 모든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요소이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적시성과 정보의 정확성은 재난이 발생한 때에 생사의 문제와 직결된다.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빨리, 널리 유포하는 것이 관건인 비상사태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실용적인 접근 방식의 선택을 의미한다. 즉, 최단 시간 내에 그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지배언어(dominant language)를 사용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Hanson-Easey et al. 2018). 따라서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언어차이, 문화적 차이, 필요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결국, 유학생을 비롯하여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자와 난민 등 문화언어소수자들은 부분적으로는 언어장벽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더 재난에 취약하게 된다(Donner and Rodriguez 2008; Marlowe and Bogen 2015).

실제, 코로나-19가 초기 일부 지역에 한정된 유행병에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확산하면서, 이 질병이 나이, 성, 젠더, 인종, 민족, 계층 등 기타 사회적 범주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노약자와 저소득 가정, 기저질환자, 문화언어적 소수집단 등 전통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훨씬 더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WHO 2020).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중앙 당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경보와 문자 세례가 연일 쏟아

지고 유통되었다. 사람들은 확진자가 방문했던 곳을 추적하고 해당 장소를 피해서 부분적으로는 질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언어소수자들은 그런 중대한 재난 정보와 주의 경보에 대해서 정보의 부족을 경험한다(Uekusa 2019). 재난의 와중에 일부 언어소수자들은 중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자신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언어능력과 재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는 재난 언어차별주의(Uekusa 2019)가 특정한 양상으로 전개된 변곡점이기도 하다. 초기 코로나-19 재난 주의 경보와 소식은 모두 한국어로만 제공되었다. 언어소수자들의 경우 한국어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면, 코로나-19에 관한 최신 정보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과 가족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 사회의 언어소수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공식어인 한국어의 원어민이 아니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 할 수도 있다. Jang과 Choi(2020)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공식 사이트를 영문과 중국어 버전으로 제공한 것은 3월말이 되어서다.³ 일부 다언어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이 경우에도 언어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양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영문버전에는 일일 브리핑, 전염 상황, 가짜 뉴스 정정 등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반면, 중국어 버전에는 코로나-19와 예방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긴급 상황이 아닐 때도 겪는 이런 소통의 어려움은 재난 상황에서 흔히 더욱 악화된다. 코로나-19는 유례없이 전 세계 공중보건 위기를 가져온 팬데믹이다. 말 그대로 예측불허의 재난이다. 하지만 어떤 재난 상황이나 사회적 비상사태에서 외국인과 같은 사회취약층이 일반인들보다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어 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다. 사회에서 특권화되고 차별적 가치를 지니는 사회적, 문화적, 언어 자본이 부족한 이들이 일대에서 겪는 어려움은 긴급상황에 처할 경우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2017년에 다국어 재난안전정보 서비스인 'Emergency Ready App'을 개발하여 'COVID-19'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영어와 중국어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재난 경보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로 보기는 어렵다.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및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이 유학생들의 경험과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특히, 문화언어적 소수자로서 외국인 유학생의 재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질적 데이터와 일부 경험적 사례를 활용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세 명의 연구자들의 개인 및 전문 연결망, 공동체 등을 통해서 편의적인 눈덩이(snowball) 샘플링 방식으로 모집되었다. 선정 기준은 코로나-19 발병이 공식 확인된 2019년 12월 말부터 2021년 3월 현재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유학 경험이 있는 졸업생으로 하며, 한국어 수준에 따른 언어 차별 양상을 보기 위해 대체로 한국어로 면담이 가능한 유학생을 기준으로 했다.⁴

데이터는 2021년 2월과 3월 사이에 외국인 유학생 10명과 일대일 면대면과 Zoom 화상회의를 통한 심층 면접으로 수집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출신국별로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이 각 2명,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이 각 1명으로 구성되어 문화 언어적 배경이 다양하다. 연령은 20대와 30대로 학부생 6명, 대학원 박사과정생 3명과 졸업생이 1명이다. 성별로는 여자 7명과 남자 3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한국어 능력의 범위는 TOPIK 3급의 일상 생활 언어 수준에서부터 6급 이상의 능숙한 수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코로나-19로 겪은 경험에 관한 여러 목격담과 경험담이 학생들 자체 민족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경험 탐색을 위해 경험 당사자와의 직접적 면담을 시도했으나, 일부는 드러나기를 꺼려서 면담을 진행하지는 못했다. 연구참여자의 기본 인구

4 재난 시기 언어능력에 따른 차별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이해가 현저히 떨어지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아래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어 능력이 비교적 높은 유학생도 재난문자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아울러 해당 유학생의 출신 국가별 커뮤니티나 유학생 모임 등이 재난 시기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인터뷰이 주변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대화가 가능한 유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통계 정보는 다음 표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인구통계 정보

No	성명	나이	성별	국적	한국어능력	학위과정	전공
1	에르덴	35	여	몽골	6급	대학원 졸	법학
2	을지	21	여	몽골	5급	학부 3	국제관계
3	후이	20	여	베트남	5급	학부 3	관광경영
4	호아	20	여	베트남	5급	학부 3	관광경영
5	무스타파	20	남	우즈베키스탄	3급	학부 2	기계공학
6	보라	29	여	캄보디아	-	학부 1	심리학
7	지우	25	남	캄보디아	5급	학부 3	관광경영
8	연지	30	여	중국	6급	대학원 박사	국문학
9	소소	33	여	중국	6급	대학원 박사	국어학
10	말리	31	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5급	대학원 박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모두 오디오 녹음하였으며, 통역자의 도움 없이 한국어로 약 60분 내외로 이뤄졌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인터뷰 방식은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방법론(Strauss and Corbin 1998)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개방형과 반구조화된 양식이 혼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최초 데이터는 학생들의 내러티브에서 드러나는 경험 양상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동안 연구자는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추가 질문과 탐침 질문으로 경험의 구체성을 기술하도록 유도하고(Spradley 1979),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좀 더 상세히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형 방법을 이용했다. 데이터 수집 직후 초기 분석 및 반복적이고 성찰적인 검토를 통해서 드러나는(emerging) 주제별로 분석내용을 범주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계속 이어진 데이터 수집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주제에 보다 초점을 맞춘 반구조화된 인터뷰 형식으로 데이터의 이론적 포화(Strauss and Corbin 1998)로 판단되는 수준까지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 자료 분석

최종 수집된 인터뷰 데이터와 현장 노트 등은 전사 과정을 통해 텍스트화되어 분석작업을 위한 전체 코퍼스(corpus)로 구성되었다. 데이터 분석에는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세트에 대한 주제 분석과 비판적 담론분석(Fairclough 2003)을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초기 오픈코딩 과정에서는 반복적인 데이터 읽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제별 코딩 도식을 개발하고, 각 코드 내 수합된 내용을 반복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상위의 포괄적 주제로 분류했다(Strauss and Corbin 1998). 축코딩(axial coding) 단계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개념을 기반으로 오픈코딩에서 드러난 주제들을 ‘언어차별주의’, ‘상징적 폭력’, ‘내재된 억압’, ‘언어이데올로기’, ‘행위주체성’ 등 5개 주요 범주로 재구조화하였다(Strauss and Corbin 1998). 이 중 공통적인 논의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이들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이 연구의 이론적 개념과 틀에 기반해 해석과 설명을 강조하고자 한다.

3) 연구 타당성 및 윤리성 제고

데이터 분석의 모든 단계에서 세 명의 공동 연구자 간의 반복적이고, 성찰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며,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결과에 대한 논의를 위해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이어졌다. 또한 데이터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일부 연구참여자와의 멤버 체킹이 이루어졌다. 이 제반 과정은 다수 전문 검토자의 관점을 통해 데이터 삼각화(triangulation)의 일환으로 질적 연구내용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Creswell and Poth 2017; Salkind 2010).

연구의 전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러 단계의 연구윤리 준수 조치를 취했다. 첫째, 면담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 참여 의사, 녹음, 데이트 활용, 사례금 지급, 멤버 체킹 등의 사항을 연구참여자에게 안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를 명백히 표한 경우에 한해 면담이 진행되었다. 둘째, 이 논문에 제시된 발췌 자료 일체에서는 개별 대학 이름, 학과, 수업,

지리적 위치 등의 개인신원 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익명 처리되었다. 다만,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과 수학능력에 대한 기존의 대중적 고정관념이나 결핍 담론을 의도치 않게 재생산 혹은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들 자신의 목소리와 언어로 내러티브에서 나타난 철자법, 문장구조 등의 오류 일부는 수정되었다. 이때 수정은 본래 의미를 왜곡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

4. 연구결과

1) 단일언어 이데올로기: 코로나-19 팬데믹 정보 접근의 취약성

코로나-19 재난은 초국적 이주를 특징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과 학업에 지대한 도전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연구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코로나-19의 긴급한 재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언어적으로 정보 접근성에서 소외되고, 제도화된 차별과 고정관념, 사회적 자본 부족 등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취약한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직면한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재난 정보 접근성이다. 한국 정부는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대중 재난 메시지 등의 다양한 디지털 툴을 활용하여 최신 코로나-19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정보가 여전히 한국어로만 제공된다는 점이며 이는 한국인과 다른 언어소수자들 간 정보와 안내 격차를 초래한다. 이런 언어차별주의는 한국사회에서 문화언어적으로 소수화된 외국인 유학생들을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언어차별주의는 재난 시에 중대한 정보, 특히 주의 경보 메시지, 대피 및 구호 정보 등에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접근할 수 없게 하며, 이는 차별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즉각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과 불안이 명백했다. “어디로

혹은 누구에게” 가서 필요한 정보를 구할지 알지 못한다. 재난 시, 기본 생필품을 지원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하는지”, 긴급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임시 거처에 대한 정보 등등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운 유학생들은 더욱 무력감과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보 공백으로 인해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보를 얻기가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웠어요. 어디서, 어떻게 터지고 있고, 어떻게 되어야 됐는지, 내가 걸리면 어디로 가야 되고,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어떤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죠. (에르텐)

많이 무서웠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부모도 많이 무서웠고. 그래, 막 전화와서 난리 났어요. 제가 ‘어디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혹시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보험도 없고, 부모도 옆에도 없고 이렇게 해서. 혹시나 나만 걸리면 다른 친구 접촉해서 또 걸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호아)

재난 상황에서 한국인 원어민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제한된 언어능력과 사회적 자본, 이주 신분이라는 특수한 요인으로 인해 재난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신입생 혹은 어학연수생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더 할 수 있다.

(한국어로 된 재난 문자 내용은) 50% 정도 이해했어요. ... 우린 외국인이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 고급 단어나, 그런 거 받아보면 어려워요. (보라)

어학당을 다니는 애들은 그걸 모르죠. “뭐고?” (휴대폰을 펼쳐 메시지를 보는 행동) 보고 덮어버리고 ... 한국어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소리가 나죠. 빼-하고 그때는 경각심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말은 무슨 말인

지 모르겠고, 하여튼 코로나 관련 문자가 왔을 거라는 이런 추측은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에르텐)

코로나-19 재난 문자와 정보에는 각종 전문 용어가 쓰였으며 이 중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신어(新語)가 쓰이기도 했다. 이수진 외(2020)에 의하면, 2019년 12월 이후 새롭게 출현한 코로나-19 관련 신어는 302개에 이르는데, 그 의미 범주도 ‘삶’과 ‘사회생활’, ‘식생활’을 비롯하여 ‘정치와 행정’, ‘보건·의학’,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났다. 조어법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면 단어보다 구(句) 단위가 4배 이상 많으며, 차용어와 혼성어, 파생어와 합성어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조사되었다. 일례로 ‘마스크’가 포함된 것으로 ‘마스크 5부제’, ‘마스크의무제’, ‘공적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금스크’, ‘호모마스쿠스’와 같은 신어들이 사용되었다. 한국인의 경우 다소 생소한 어휘들이지만 맥락을 통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언어 소수자들의 경우 맥락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어휘가 포함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어로 된 재난 문자를 보면) 솔직히 내용에 따라 다르죠. 어떤 거는 약간, 예를 들면, ‘확진자’ 그런 거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확진자’란 이런 단어들은 다 새로운 단어라서 저는 이해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점점 이런 상황 반복되면서, 그거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뉴스나 그런 거 알아듣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단어 많아서 약간 정보들을 얻기도 힘들어요. (지우)

(재난 문자에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제가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았고, 저도 이제 코로나 관련한 전문적인 단어가 나오니까 저도 이제 모르니까 검색하고 알게 되고 … 자가격리 뭐 확진자 뭐 … 이 단어를 이제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서 다 미리 제가 알게 되고 아 확진자가 이런 거구나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말리)

가끔은 정부에서 내린 그런 공지사항 같은 거도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약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기 했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소소)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는 물론, ‘자가격리’, ‘확진자’와 같은 단어를 처음 접했으며, 공지문의 경우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긴급 재난 의사소통 메시지의 통사적 형태는 한두 문장으로 필요한 정보가 응축된 간결한 텔레그래픽(전보) 형태를 특징으로 했다. 사용된 어휘는 한국어의 특성 상 다수의 한자어를 이용해 명사화(nominalization)되어 세부 맥락이 생략되거나 응축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Fairclough 2003).⁵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런 언어 장벽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들은 재난 경고, 대피 정보, 재난 대비 등이 다언어 양식과 쉬운 언어로 제공되는 게 중요함을 시사한다. 모든 유학생이 2~4개의 다언어 화자임에도 ‘다언어서비스’로 코로나-19 재난 메시지, 정보를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중국 유학생인 연지가 한국입국 시 공항에서 간단한 다언어 안내서를 받은 것과 소소가 경기도 지역 재난 문자 메시지가 기계번역 투로 전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참여자 중에는 다언어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근데 공항에서도 제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줄 서고 자가격리 주소를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어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 근데 그 공항 직원분들이 한국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줄 엄청 많이 섰어요. 시간 엄청 많이 기다렸어요. 앞에 사람 다 끝나는 거 두 시간 동안

5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 문자 메시지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00도청] 휴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 실내장소는 감염이 상당히 높으므로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5.09)

[보건복지부] 4월말부터 5월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니 1339나 보건소로 상담바랍니다. (2020.05.09)

기다렸었어요. 그 언어 문제 때문에, 살짝 그런 거 좀 있었어요. (연지)

한국어랑 영어 있는 거 문자로는 한 번 정도 받은 적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공지문 같은 거 한 몇 번 정도 받았었던 거 같은데 문자로 왔을 때 ○○시청인가? ○○도청인가 문자 왔는데요, 근데 영어는 잘 하지 못하지만 또 그때 보내주신 용어 문자는 그거도 영어인가? 싶었어요. 약간 조금 번역기에 넣어서 돌리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소)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 금지보다는 특별검역절차를 포함한 특별입국절차로 통제하는 대안적인 방식을 취하였다(이재유 2020; 권채리 2020).⁶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별 검역 신고서 작성 등에 대한 다국어 안내가 지원되지 않아 공항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언어 지원 상황에 대해 연구 참여자 말리는 “로마법이니까”라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영어로 전해주면 편하죠, 우리야. 근데 거의 다 ... 로마법이니까 한국어로 쓰는 거죠. 참 아쉽지만 그렇죠. (말리)

2) 내재화된 억압: 캠퍼스 밖의 일상적 차별과 고정관념

유학생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은 문화 충격과 재난 트라우마의 혼합으로 가중된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서 유학생들은 내국인 혹은 원어민 화자들이 당연히 여기는 언어적, 사회적 자본에 제한된 접근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학생은 재난과 같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한국인에 비해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어 단

6 특별입국절차는 2020년 2월 4일 0시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3월 19일 이후에는 모든 국가로 대상국가를 확대하였다(빅카인즈 ‘특별입국절차’ 기사 검색 결과 참조, www.bigkinds.or.kr).

일 언어적 헤게모니에 더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 정주국의 해당기관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겪는 권력 불평등은 인종, 국적 혹은 젠더 등 다른 사회적 요인에 귀인되어 훨씬 더 복합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중 을지는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위해 병원을 두 차례 방문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첫 방문에서 검사를 거부당했다. 한국 코로나-19 발병 진앙지로 여겨진 대구 인근 대학의 재학생인 그는 잠시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를 방문했을 때 고열로 감염이 우려되자, 재난문자를 통해 안내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한 상황이었다. 고열로 신체적으로 약화된 상태에다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진료소까지 40여분 거리를 두 차례 걸어서 오가며 불안과 공포로 힘들었다고 한다.

대구에 코로나가 많이 터졌잖아요. 서울에 있다가 잠시 대구에 왔다가 다시 서울로 갔는데, 열이 좀 났어요. ... 검사 받으려고 하는데 외국인 등록증 보여줬어요. 저 열이 37.5도였는데, 저 검사 안 하고 돌려보냈어요. 외국인 뭐, 그게 뭐 그랬대요. 외국인 등록증도 있고 줬는데. 그냥 처방약 써줄 테니까 이거 먹어라 ... 제가 대상이 안 된다고, 외국인. “외국인 이거 하겠냐?” “13만원 줘야 된다.” “아니면 그냥 처방약 써준다” 해서. 근데 “열이 났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해서, 그 1339 그 번호에서 “보건소로 전화해서 남겨놓겠다, 다시 가봐라.”해서 그래서 무료로 해줬어요. 열나면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된다. 저도 그 뉴스 기사 봤거든요. 근데 갔는데, “13만원 줘야 된다” 그랬어요. 열 나서 되게 아픈데 두 번이나 가가지고 힘들었어요. 꼭 걸어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열도 나서 막 ‘내가 코로나 걸렸으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을지)

언어차별주의의 일상적 경험은 언어로 인한 사회적 배제와 소외이다. 재난 언어차별주의는 비단 언어소수자의 불편함의 문제가 본질은 아니다. 차별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간 근처의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되며, 언어소수자로서 이들은 차별을 가하는 가시적 상대가 없는, 제도화되고 일상화된 비가시적 언어차별주

의와 대결하게 된다. 일상에서 그런 상징적 폭력에 상시 노출되면 언어적 억압의 내재화를 피하기 어렵다. 만성적으로 언어 배제감은 이들의 고립과 일상적 억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⁷

재난 시기에는 공동체 통합과 연대, 그리고 이타심 등이 증대되며 언어장벽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적 장벽이 한시적으로 제거되는 ‘허니문’ 상태가 된다 (Briggs 2005). 그럼에도 확장된 지원시스템과 이타심이 언어적으로 소외된 이주민 개인과 집단에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특이점은 그러한 확장된 지원시스템과 이타심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공포증으로 인해 무색해진 것이다. 캠퍼스가 폐쇄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인종차별주의적 행위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이나 캠퍼스 밖의 지역 커뮤니티,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두드러진다.

알바가는데 버스 타다가 어떤 한국 아줌마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근데 약간 계속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내 계속 우리 쳐다보고 약간 눈빛을 보면 약간 좀 우리가 무서운 거 같아요. 뭐가 좀 혹시나 외국인이라서 ... 그 아줌마가 혹시나 코로나 이런 게 걸리거나 그런 생각을 들었나 봐요. 근데 계속 쳐다보고 약간 우린 병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인 거 같아요. (지우)

근데 식당 아줌마가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사람이 엄청 흥분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여기서 먹으면 안된다고 빨리 나

7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이주민의 차별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관련 정책·제도적 차별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없었음(29.8%)”,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안내·상담을 받을 수 없었음(22.8%)”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이 밖에도 차별 경험을 묻는 주관식 질문의 응답 속에도 “정부긴급 문자가 한국어로만 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결국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난 상황을 알리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방역대책과 지원대책에서 이주민이 쉽게 배제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 피해의 정도가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로 인해 이주민이 특별히 취약한 계층이 되고 있음이 드러난 결과”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 www.humanrights.go.kr).

가라고 그래서 저 차별했어요. 그때 엄청 화나고 그 이즘마 근데 저도 너무 당황해서 “그러면 여기서 먹을게요. 어차피 학교에서는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 해줬으니깐요.” 근데 그 이즘마가 “안된다. 만약에 일이 터지면 안된다.”고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연지)

온라인으로 수업 잘 안들려서 ... 다른 새로운 핸드폰을 샀어요. 근데 그 핸드폰 가게 직원이 자꾸 눈치가 있어요. “돈 없나 봐” 얼굴도 안 좋아해서 ... 근데 제가 “이거 얼마예요?” 말 안 끝나서 “십만 원” ... 얼굴도 안 봐요. “그것 비싸. 보지 마. 이거 비싸.싼 건 이쪽으로 ...” (보라)

(아르바이트할 때) 어떤 손님은 좋은데, (어떤 손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식당은 왜 외국인을 쓰느냐”고 했어요. 좀 말투, 말투 듣고 나서, 제 발음도 이상하잖아요. ... 제 한국어 능력, 자신감 없는 것 같아서. 못 알아 들은 때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제가요 만약에 지금 말하면 그 사람이 못 알아 들으면, 그 사람이 말했는데, 제가 못 알아 들으면 좀 그런 것 많았어요. (후이)

유학생의 언어장벽만이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상황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카트리나 허리케인 재난 상황에서 다른 민족 커뮤니티보다 유독 라틴 커뮤니티의 피해가 심했으며, 많은 미등록 라틴인들이 재난 상황에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rowley 2021). 체포와 강제 추방에 대한 두려움, 남의 눈에 드러나는 것과 지원을 받는 그 자체에 대한 주저와 망설임, 낮은 위기의식, 그리고 대처할 곳이 딱히 없다는 점 등이 대처하지 않은 이유로 드러났다. 재난 상황에서 소수인종집단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런 차별적인 반응은 단순히 언어장벽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체포 및 강제 추방에 대한 두려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거리낌, 지원받는 것에 대한 주저, 그리고 낮은 위험 인식 등 기존의 만성적인 구조적 불평등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르덴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격리를 겪은 동생의 경험

담을 들려준다. 자가격리 동안 해당 자치단체에서 한 차례 물품 지원이 이뤄진 후 담당자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화로 알려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에르텐의 동생과 가족들은 더는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가 매번 음식과 생필품을 챙겨서 동생의 집 앞에 두는 방식으로 동생의 격리를 돌보았다고 한다. 정부기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어차피 말을 못하니까”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그런데 우리 동생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으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을 깬다 ... 위치 추적인가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움직이나”고 ○○읍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다.” 집에 있으니까 어차피 안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전화기를 두고 네가 분명히 나갔을 건데 왜 안 움직이나?’ 안 움직이는 것까지도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안 움직인다고 하고, 그리고 또 3~4일있다가 뭐 이렇게 갖다 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개는 원하는 게 있어도 말 못하니까 그냥 집에 있었죠. (에르텐)

초기 분석 단계에서 연구자는 이때 “말”을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필요사항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후 멤버 체킹 과정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받아야 할 지원을 마치 뺏는다는 눈총을 받을까” 주저하여 결국 지원요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외국인인 자신들이 마치 한국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을 부당하게 취한다는 외국인에 대한 일상적인 비난과 고정관념이 이들에게 내면화되어 주저와 망설임, 그리고 결국은 포기로 이어지는 상황인 것이다. 재난 시기 공공연한 이타심이 고양된 상황에서도, 소수화되고 주변화된 ‘타자’는 스스로 지원요청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생사가 걸린 문제에서조차 “말을 못하고” 침묵 당하는 상징적 폭력(Bourdieu 1991)의 일상성을 엿볼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유학생들의 내러티브에서 선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들의 한국에서 일상은 크고 작은 차별과 고정관념 경험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길 때, 마땅히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과 보호를 외면당한 이들의 일상 경험칙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조차 생존을 위해 필요한 외부 도움을 요청하는 데 방해로 작용한다. 이는 궁극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일상의 폭력이 내재화된 결과로 보인다.

친구가 없다면 되게 어렵지 않을까, 그자가격리라는 거,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연지)

친구는 저보다 더 먼저 왔으니까 일주일 먼저 격리했으니까, 저보다 일주일 먼저 격리해제되는 거요. 그래서 친구가 사줬어요. (후이)

식당에 저희 때는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가봤는데 약간 눈치를 봤대요. 네 저도 이제 나가서 뭐가, 저는 괜찮은지 뭐라고 해야 하지? 저도 사실은 코로나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전염되어있는지, 이미 전염됐는지 그런 거 다 확신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곳만 나가는데 새벽에, 서류 제출해야 할 거 있는데요, 새벽에 서류를 교수님 우편함에 넣고 다시 돌아왔어요. 사람 없을 때. (소소)

2주 동안은 방안에 그냥 방콕했어요. 음식도 지원해줬고 그리고 부족하면은 친구한테 전화해서 사달라고 해서 문 앞까지 놔두고 가라고 했어요. 그 ○○시청에서, 두 박스인가, 그렇게 라면하고 밥, 햇밥 같은 건 지원해줬어요. 한 번만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부탁했어요. (호아)

코로나-19 상황에서 유학생들은 나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친구의 도움으로 자가격리 생활을 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상황을 견뎌낸다. 한편, 유학생들의 경우, 비상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제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왜 늦게 왔냐. 제때 왔어야지”라

고 오히려 힐책을 당하고, 실질적인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혹은 대학의 관계기관에서 도움을 청할 때, 다소간 느끼게 되는 열등감과 비굴감, 그리고 분노와 좌절 등으로 더는 도움을 청하지 않기도 했다. 상시적으로 겪는 언어차별주의가 내재화되면서, 문화언어적 소수자로서 낮은 자존감과 타협에서 자신감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심지어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한국인 원어민처럼 당당하게 재난 구호 지원을 요청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지 못한다. 이런 구호 지원은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그러하다. “너희들은 우리한테서 뭔가를 얻으려 왔지?”라는 이방인인 이들을 향한 때리는 듯 아픈 ‘시선’은 스스로 “그냥 참고 견뎌라. 늘 그래왔으니까.”라는 포기당하고 좌절된 자조로 나타났다.

3) 유학생의 행위주체성: 초국적 민족공동체, 언어브로커링을 통한 재난 언어차별주의 대응

코로나-19 재난 정보의 접근과 가용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 직면하자, 외국인 유학생들은 민족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초국적 언어문화자원과 연결망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행위성을 보인다.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재난 정보와 지원, 연대와 위안 제공은 유학생 자체의 민족커뮤니티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을 끄는 부분은 유학생들이 한국사회 내에서는 문화언어 이데올로기적으로 소수화된 집단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유력하고 탄력적인 초국적 정체성이 부각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다양한 초국적 언어문화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재난 언어차별주의에 대처하는 전략적 행위성(agency)을 발휘하곤 했다. 초국적 행위성의 구체적 실천은 언어와 언어를 넘나드는 트랜스랭귀징(translanguaging)(García and Wei 2014) 형태의 언어브로커링(language brokering)이다(Tse 1995).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국어로만 재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언어브로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다. 외국인 유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혹은 다언어적 개인 등이 그런 언어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⁸

우리가 학생회 입장에서 언어(한국어)를 아는 애들이 ... 몽골, 자체 내 커뮤니티에서 ... (코로나가 발생하면) 기사가 나와요. 나오자마자 ... 나는 그게 이해가 되니까 빨리 번역을 해서 “야, 여기서 이렇게 터졌단다.” “언제 터졌대. 그래서 만약에 거기 가거나 한 사람 있으면 조심하라.” 그 소식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커뮤니티에 올리고 ...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는 동선은 매일매일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 동선을 다 캡처해서 “여기 이렇게 다녔단다. 오늘은 몇 명이란다.” 이렇게 계속 정보를 우리 말을 (한국어를) 잘 못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에르텐)

이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모두는 기본적으로 다문화·다언어를 배경으로 한다.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재난 상황 동안 개인적 수준에서 문화언어브로커 경험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중앙아프리카 출신인 말리는 프랑스어와 영어, 스와힐리어와 한국생활 10년 동안 토픽 5급 이상의 한국어 능숙도를 갖춘 다언어 화자이다. 그는 한국어 재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와 영어로 정보를 해독해주는 언어브로커(Tse 1995)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접촉지대(Pratt 1991)에서 세계적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로서 영어의 패권은 분산(decentered)되며, 한국 내 유학생의 재난 소통은 한국어로 집중되어 한국어가 실질적인 링구아 프랑카 기능을 수행하는 초국적인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Schiller 2005)이 형성된다.

(문자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요. 많아

8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에 대한 문자서비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유학생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다. 방글라데시 이주자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어에 익숙하며, 국내 정보에도 밝은 유학생이 자국어로 정보를 요약하여 문자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언어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경학 2020: 28 참조).

요. 중국 친구하고, 베트남 친구, 그 다음에 필리핀 친구도 자주 연락와요. ... 애들이 가끔씩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자주 연락와요. 이런, 이런 제가 설명해줘요. 설명해주니까 애들이 이걸 듣고 이동하는 거예요. ... 단어가 어렵고, 예전엔 보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검색하고 뜻을 알고 그 친구들한테, 한국말 천천히, 천천히 설명하고, 아니면 영어를 잘하면 영어로 그 친구한테 설명하고 그랬어요. (말리)

○○○ 누나가 알려줬는데. ○○○ 누나가 우리 다 우즈벡 사람들에게 반장 되는 거예요. 반장. (무스타파)

문자는 계속 와서, 와가지고. 그 SNS에서 그 뉴스,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 그룹 있어요. 그 매일 매일, 그 코로나 확진자 얼마나 나왔는지, 어디어디에 나왔는지 다 올려줬어요. 그 페이스북에서. (호아)

한편, 유학생 민족커뮤니티 활동에서, 동시대 급증한 초국적 이주로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형태로 복잡하게 진화되는 초다양성(superdiverity)(Blommaert 2010; Vertovec 2009)의 일면과 이에 따른 사회적 힘과 정보 격차 문제가 포착된다. 즉 한국 사회 내 거시적 사회 불평등은 문화언어적으로 소수화된 집단 혹은 개인 간에도 프랙탈(fractal)(Irvine and Gal 1999) 구조로 층층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런 복잡다단한 초다양성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문화언어소수자 집단 간 코로나-19 정보 및 지원 불평등과 격차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Briggs 2018). 실제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몽골, 베트남 등 한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유학생 공동체는 코로나-19 재난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자체 사회자본과 자원을 활용한 연대와 지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당 국가 출신의 유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한국으로 유입이 늘고 있는 캄보디아 유학생처럼 자체 커뮤니티가 안정되게 구축되지 못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재난 동안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어학당에서 공부할 때 베트남 학생들 많아요. 도와주는 선생님 한 분 있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이예요. 저는 없어요. 그 채팅방이 저는 없어요. 그 정보, 그런 거 있으면 베트남 학생들 알아요.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라서) 몰라요. (보라)

(영사관에 마스크 요청)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 7장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우리 힘내자.” 이렇게 편지도 쓰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다 나눴어요. ... ○○대 학생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커뮤니티가 없어요. 대부분 다 어학당이고, 학부 진학한 몇 명만 있고 거기는 더 열악해요. 개들한테도 몇 명한테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해결했어요. (에르덴)

한국에서 유학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유학생 수가 우세한 중국, 몽골, 베트남 등의 유학생 커뮤니티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구축이 안정적이다. 예컨대,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코로나-19 재난 발병 상황에서 기존에 구축된 자체 민족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정보 중재 및 정서적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다(Jang and Choi 2020). 즉, 이미 축적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동원해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며 위기 상황에 대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상대적으로 아직 한국 사회에서 그들만의 사회적 자본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언어소수 집단이나 유학생들은 위기상황에서 불확실성과 불안감, 공포 등의 상황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상기의 발췌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 상황에서 이타심이 발휘되는 허니문 상태(Briggs 2005)와 유사하게 유학생들 간의 초국적 통합과 연대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인간 사회에서 언어는 의미 생성과 소통의 핵심적 기호체계이면서 동시에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언어차별주의는 사회차별

의 지속적인 한 형태이며, 초국적 이주자들의 일상 삶에 늘 존재한다. 단지 코로나-19와 같이 일상을 흔드는 불안한 상황에서 대중의 의식과 행동에 가시화될 뿐이며, 차별을 당해온 언어소수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재난 언어차별주의 극복은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과 문화언어적 소수자들의 일상적 언어차별의 경험에 대한 적절한 연구를 요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런 언어차별주의는 존재했고, 코로나 종식 이후의 일상에서도 ‘타자’인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의 일환으로 일상 언어차별주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다언어 정보 지원에 집중하는 피상적 처방이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겪은 언어차별주의에 대한 경험, 혹은 새로운 일상에서 보편화된 언어차별주의의 사례를 규명하고 제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더 맥락화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재난 이후 회복이 진전되면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 일상에 뿌리내린다. 이미 포스트 코로나-19의 담론에서 출현하는 ‘뉴노멀’이 재난 과정에서 일어난 학습에 대한 메타적 인식에 해당될 것이다. 재난 언어차별주의에 대한 언어적, 문화적 소수자들의 경험은 그런 회복과 관련되며, ‘재난’ 언어차별주의가 ‘일상’ 언어차별주의로 굳어지는 상징적 폭력의 일반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재난 언어차별주의 연구자들은 이들이 겪는 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난 기간에 직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재난 이전의 이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와 조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겪는 언어차별주의는 재난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비롯된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Uekusa(2019)는 피해자들이 정상으로 되돌아가자마자, 언어차별주의는 일상 사회현상으로 되돌아온다고 한다. 많은 이들에게 이런 언어차별주의는 단지 ‘가시적인’ 언어장벽으로 인해 재난 중 혹은 재난 후에 두드러질 뿐이다. 재난 중에는 다언어 재난 정보와 구호 정보 서비스, 이중언어 혹은 다언어봉사자 제공 등 언어장벽을 해소하려는 구조적 노력들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시적인 노력이 되어서는 안된다.

경계해야 할 담론은 재난 커뮤니케이션 실패에 대한 대항적인 반작용으로 오

히려 다언어, 다문화를 ‘문제’ 혹은 ‘장벽’으로 프레임하는 것이다. 언어소수자들의 코로나-19 및 위기 상황에서의 소외와 배제가 역으로, ‘문제로서 언어’(Ruiz 1984)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유학생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지배 언어능력 부족과, 다문화와 다언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마치 재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처럼 호도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언어문제 혹은 언어장벽 문제가 부각되면, 흔히 일차원적인 처방은 유학생들과 이주민, 난민 등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처방은 문화언어 소수자에게 만성적으로 내재화된 열등감과 언어억압감에 더해서, 제한된 한국어 능력 극복에 대한 책임감까지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언어는 ‘문제’ 혹은 ‘도전’(Shen 2020)으로서 인식되기보다는 지위와 무관하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의 하나로 여겨져야 한다. ‘권리’로서의 언어는 공동생활 활동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언어를 기반으로 한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파괴적 영향은 전례가 없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인류 역사와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이와 같은 재난과 비상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 집단과 개인이 더욱 취약하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며 선제적 대처와 전략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부분이다.⁹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조되어야 할 논점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의 긴급한 재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유학생들은 언어적으로 정보 접근성에서 소외되었으며, 사회적 자본 부족과 차별로 인해 취약한 상황을 경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핵심 재난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재난용어 이해뿐 아니라, 중요한 정보에 접근성을 갖는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접근성은 재난 상황에서 원어민 혹은 그 사회의 지배적 언어화자들이 더 소유하기 쉬운 당연한 ‘자

9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 지침(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는 “코로나19의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 전염 방지 대책과 관련한 정보는 이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20, COVID-19 AND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GUIDANCE, <https://www.ohchr.org>).

본 혹은 특권'으로 개념화된다. 언어소수자들이 의도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언어차별주의로 인한 미시적 수준의 고충과 분투는 다문화 사회의 재난 대응 정책과 법률 연구에서 충분히 다뤄질 가치가 있다.¹⁰

둘째, 유학생에 대한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유학생들은 내국인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타자화'되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된다. 유학생이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일상의 편견과 불평등이 누적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심각한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회의 모세혈관 수준까지 일상화된 권력과 억압(Foucault 1980), 미세한 수준에서 미묘하게 자행되는 차별이 유학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순간에도 기본적 인권을 요구하지 못하는 자기통제(self-disciplined)(Foucault 1980) 상황으로 내재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유학생들에게 민감하게 인지되는 언어적 부당함은 원어민 화자라면 일반적으로 부닥칠 필요가 없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연함과 일상성이 이들 언어소수자들에게는 명백한 차별의 양상으로 다가간다. 미시적 수준의 언어차별주의와 다른 억압의 형태, 특히 인종차별과 상호교차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 그리고 착취 혹은 이용당한다고 자주 느낀다(Collins 2000; Crenshaw 1991)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을 둘러싼 양극화는 한국 사회 이주민에 대한 양가적 태도와 그 근저 이데올로기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한 인식은 대학 캠퍼스라는 물리적 환경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와 초국적 환경에서 유학생들의 삶을 위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취해야 할 중대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셋째, 유학생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초국적 언어문화 자본과 사회

10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재난'의 일종으로 구분되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휴대전화의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의무화되었지만 이 법이 정하는 대상이 '국민'이기 때문에 긴급재난문자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지원에 대한 사항은 규정된 것이 없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재난에 취약한 집단으로 특히 긴급재난메시지의 정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언어적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러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박진찬 외 2013; 김윤희 외 2015; 구효정 외 2018; 김경학 2020) 재난안전법의 '안전취약계층'에 '외국인'을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른바 '다문화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회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자본을 동원하여 재난 언어차별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한국어로만 재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주민 커뮤니티 혹은 소셜 미디어 등이 언어브로커 역할을 하는 가운데 유학생들의 행위 주체성을 포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출신 국가별로 유학생 커뮤니티의 규모와 역할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해당 국가 출신의 유학생 비율이 낮고 한국 유학의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국가의 유학생들은 코로나-19 재난 동안 더더욱 취약한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몽골과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들은 국내에 안정된 커뮤니티가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유학생 공동체의 지지와 연대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발휘한 유학생 공동체의 성공적이고도 긍정적인 경험을 지역 사회가 수렴하여 이주민을 위한 정보 중재와 정서적 지원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난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연구 결과는 같은 사회에 있는 외국인이 재난 커뮤니케이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학생들의 언어문화 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긴급한 의제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포스트 코로나를 논하고 ‘뉴노멀’로의 선부른 이행 담론의 위험성이다.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새롭지 않은 것이라 하여 경시되거나 간과될 수는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노골화된 차별의 이데올로기와 행태가 마치 또 다른 ‘새롭지 않은’ 편견과 인종차별로 화석화되어 ‘뉴노멀’로 재생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교신: 김정숙(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조교수)(jungskkim@daegu.ac.kr)

Correspondence: Jung Sook Kim (Assistant Professor, Center for Multiculturalism and Social Policy, Daegu University)(jungskkim@daegu.ac.kr)

2021.04.25 접수, 2021.04.27 심사, 2021.05.17 게재확정

참고문헌

- 구효정·주성빈, 2018, 재난약자를 위한 정보매체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18(5), 83-92.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 www.humanrights.go.kr.
- 권채리, 2020, 코로나 19 이후 이민정책 및 법제변화의 전망, *유럽헌법연구*, 34, 327-356.
- 김경학·Md Golam Rabbani, 2020, 코로나-19에 대한 경험: 차별과 배제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연구*, 14(2), 7-46.
- 김윤희·류현숙, 2015,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안전 취약성에 관한 연구: 정보요구 사항에 대한 심층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1(3), 151-176.
- 박진찬 외, 2013, 외국인의 재난안전 서비스에 관한 의식조사,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59-160.
- 빅카인즈, www.bigkinds.or.kr.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20, COVID-19 AND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GUIDANCE, <https://www.ohchr.org>.
- 이수진 외, 2020, 코로나-19 신어의 수집과 사용 양상 연구: 주제 특정적 신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고찰, *한국사전학*, 36, 136-171.
- 이재유, 2020, 코로나 19 대응 관련 한국의 출입국 제한조치 및 국제법적 평가, *서울국제법연구*, 27(1), 65-101.
- Alim, H. S., Reyes, A., and Kroskrity, P. V., 2020, *The Oxford handbook of language and r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lommaert, J., 2010, *The sociolinguistics of glob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and Loïc J. D. Wacquant.,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iggs, C. L., 2005, Communicability, racial discourse, and diseas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4, 269-291.
- Briggs, C. L., 2018, Language, justice, and rabies, In N. Avineri, L. R. Graham, E. J. Johnson, R. C. Riner and J. Rosa (eds.), *Language and social justice in practice*. 109-118, New York: Routledge.
- Casagrande, D. G., McIlavine-Newsad, H., and Jones, E. C., 2015, Social networks of help-seeking in different types of disaster responses to the 2008 Mississippi River

- floods. *Human Organization*, 74(4), 351-361.
- Collins, P. H., 2000,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2nd ed). New York, NY: Routledge.
- Crenshaw, K.,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1241-1299.
- Creswell, J. W., and Poth, C. N., 201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4th ed). London: Sage.
- Crowley, J., 2021, Social vulnerability factors and reported post-disaster needs in the aftermath in hurricane Flo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Science*, 12, 13-23.
- Donner, W., and Rodríguez, H., 2008, Population composition, migration and inequality: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changes on disaster risk and vulnerability. *Social Forces*, 87(2), 1089-1114.
- Eagleton, T., 1991, *Ideology: An introduction*. New York: Verso.
- Fairclough, N., 2001, *Language and power*. London: Longman.
-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London: Routledge.
- Foucault, M.,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New York: Pantheon Books.
- García, O., and Wei, L., 2014, *Translanguaging, language, bilingualism and educat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Gramsci, A.,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Hanson-Easey, S., Every, D., Hansen, A., and Bi, P., 2018, Risk communication for new and emerging communities: The contingent role of social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28, 620-628.
- Heliot, Y., Mittelmeier, J., and Rienties, B., 2019, Developing learning relationships in intercultural and multi-disciplinary environments: A mixed method investigation of management students' experience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5(11), 2356-2370.
- Heller, M., 2010, The commodification of languag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9, 101-114.
- Irvine, J. T., and Gal, S., 1999, Language ideology and linguistic differentiation, In P. V. Kroskrity (ed), *Regimes of language: Ideologies, politics and identity*. 33-79, Santa Fe, NM: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 Jang, I., and Choi, L., 2020, Staying connected during COVID-19: The social and com-

- municative role of an ethnic online community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Multilingua-Journal of Cross-Cultural and Interlanguage Communication*, 39(5), 541-552.
- Kim, J., 2020, The diversity discourse and language ideologies around international teaching assistants. *Critical Discourse Studies*, 17(4), 412-428.
- Kroskrity, P. V., 2015, Language ideologies: Emergence, elaboration, and application. In N. Bonvillian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Linguistic Anthropology*, 95-108, New York: Routledge.
- Ladegaard, H. J., 2017, The disquieting tension of 'the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 of sojourn in Hong Kong.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38(3), 268-282.
- Lee, J., 2020, The perceived 'China threat' to US higher education. Retrieved on March 5, 2021. from NAFSA: <https://www.nafsa.org/ie-magazine/2020/2/27/jenny-leeperceived-china-threat-us-higher-education>.
- Lippi-Green, R., 1997, *English with an accent: Language, ideology, an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London: Routledge.
- Marlowe, J., and Bogen, R., 2015, Young people from refugee backgrounds as a resour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eduction*, 14(2), 125-131.
- May, S., 2005, Language rights: Moving the debate forward. *Journal of Sociolinguistics*, 9(3), 319-347.
- Mittelmeier, J., and Cockayne, H., 2020, Global depic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a time of crisis: A thematic analysis of Twitter data during COVID-19.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703604> or <http://dx.doi.org/10.2139/ssrn.3703604>.
- Phillipson, R., 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ratt, M. L., 1991, Arts of the contact zone. *Profession*, 33-40.
- Puller, I., Zhang, J., and Li, J., 2020, Linguistic diversity in a time of crisis: Language challenges of the COVID-19 pandemic. *Multilingua-Journal of Cross-Cultural and Interlanguage Communication*, 39(5), 503-515.
- Ruiz, R., 1984, Orientations in language planning. *NABE Journal*, 8(2), 15-34.
- Salkind, N. J., 2010, *Encyclopedia of research design*. Thousand Oaks, CA: Sage.
- Schiller, N. G., 2005, Transnational social fields and imperialism: Bringing a theory of power to transnational studies. *Anthropological Theory*, 5(4), 439-461.
- Schmidt, R., 2002, Racialization and language policy: The case of the U.S.A. *Multilingua*

- Journal of Cross-Cultural and Interlanguage Communication*, 21, 141-161.
- Scott, J. C., 1990,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hen, Q., 2020, Commentary: Directions in language plann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Multilingua-Journal of Cross-Cultural and Interlanguage Communication*, 39(5), 625-629.
- Skutnabb-Kangas, T., and Phillipson, P., 1995, Linguistic human rights, past and present, In T. Skutnabb-Kangas and R. Phillipson (eds.), *Linguistic human rights: Overcoming linguistic discrimination*. 71-110, Berlin: Mouton de Gruyter.
- Spradle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Strauss, A., and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 Tierney, K., 2006, Social inequality, hazards, and disasters, In R. J. Daniels, D. F. Kettl and H. Kunreuther (eds.), *On risk and disaster: Lessons from Hurricane Katrina*. 109-128,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Tse, L., 1995, Language brokering in linguistic minority communities: The case of Chinese-and Vietnamese-American students. *Bilingual Research Journal*, 20(3-4), 485-498.
- Uekusa, S., 2019, Disaster linguicism: Linguistic minorities in disasters. *Language in Society*, 48(3), 353-375.
- Urciuoli, B., 2020, Racializing, ethnicizing, and diversity discourses: The forms may change but the pragmatics stay remarkably the same, In H. S. Alim, A. Reyes and P. V. Kroskrity, P. V. (eds.), *The Oxford handbook of language and race*. 108-13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Dijk, T., 1993, Principle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 Society*, 4(2), 249-283.
- Vertovec, S., 2009, *Transnationalism*. New York: Routledge.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WHO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COVID-19-11 March 2020, <https://www.who.int/director-general/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11-march-2020>.
- Yao, C. W., 2018, "They don't care about you": First year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s with neo-racism and othering on a U.S. campus. *Journal of First-year Experience and Students Transition*, 30(1), 87-101.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Vulnerability of International Students

Hwa Sook Yi* · Jung Sook Kim** · Yong Seung Lee***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vulnerabilit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Informed by the theoretical concepts of disaster linguicism and language ideologies, the study explores how the pandemic affects those students, and how the students have access to the disaster information and respond to the challenges entailed by the pandemic. A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nterview data collected from a total of 10 international students. The findings suggest that international students had limited access to the COVID-19 disaster information primarily due to multiple forms of linguicism embedded in the institutionalized inequalities of social structure. The students' vulnerabilities were more compounded by the internalized oppression stemmed from the ideological workings of the dominance. Both language brokering and translanguaging were employed as the coping strategies out of the students' agency to tackle the challenges posed by the pandemic.

Keywords Disaster Linguicism, Language Ideology, Translanguaging, COVID-19, International Students

* First-Auth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orean, Researcher, kkokkomai@daum.net

** Corresponding Author, Daegu University, Sociolinguistics/Applied Linguistics, Assistant Professor, jungskkim@daegu.ac.kr

*** Co-Author, Daegu University, Politics, Associate Professor, leeyongseung@daegu.ac.kr